



농림축산식품부

설명자료
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10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서기관 김상돈(2232) / 제공일: 10월 5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11월~12월 김장철에는 고랭지배추가 아닌 가을배추가 사용되고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적 [이투데이 보도(10.5일자)에 대한 설명]

- ☐ 관련 보도의 김장 비용은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 배추·무가 아닌 현재 유통되는 고랭지 배추·무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김장 비용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
- 현재 출하중인 배추는 강릉, 평창, 태백 등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,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, 연이은 태풍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높은 상황
-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는 지난 8~9월에 심겨진(정식) 가을 배추로 재배면적이 평년비 2% 증가하였고,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주산지인 해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하될 예정
- ☐ 올해 가을 배추 초기 생육은 태풍, 강우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나, 최근 기상 호조로 생육 중기 이후 작황은 점차 회복 중

*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, 일조량과 기온이 생육에 적합한 가을에 성장하기 때문에 배추 4가지 작형(봄, 고랭지, 가을, 겨울)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품질도 좋아 11월과 12월 배추 평년가격은 통상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 가격을 형성

○ 10월 5일자 이투데이 <20포기 담그려면 42만원... “김장하기 겁난다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지난해 김장비용과 최근 물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,269원인데 비해 올해는 42만 3,792원으로 김장비용이 1년 전과 비교 48% 상승
- 지난해 20포기 배추 가격은 8만 4,000원이었지만 올해는 두배 이상 오른 19만 3,980원
- 그 외 김장에 사용되는 대파(101.9%), 쪽파(100.8%)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으며, 생강(77.1%), 마늘(51.2%), 무(49.0%) 인상률도 부담스러운 수준



농림축산식품부 설명

-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등 김장에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을 점검하고 농가의 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관련 보도에서 산출한 김장 비용은 김장철에 사용되지 않는 고랭지배추, 고랭지무 등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김장 비용에 비해 과다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현재 출하중인 배추는 강릉, 평창, 태백 등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,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,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높은 상황입니다.

* 고랭지 배추 : 재배면적 4,669ha(평년비 7%↓), 생산량 339천톤(평년비 14%↓)

* 도매가격 : (7월) 3,413원/포기 → (8월) 5,438 → (9월) 7,765 (평년비 81%↑)

- 그 외 무, 대파, 쪽파 등의 채소류도 현재는 고랭지 등 일부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고, 배추와 같이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□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는 지난 8~9월에 심겨진(정식) 가을배추로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2% 증가하였고,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주산지인 해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하될 예정입니다.

- 올해 가을 배추 초기 생육은 태풍, 강우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나, 최근 기상 호조로 생육 중기 이후 작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의 본격 김장철에 출하되는 전남(해남 등)의 가을 배추는 태풍 등의 영향이 적어 작황은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

* 가을 배추 : 재배면적 12,783ha(평년비 2%↑, 전년비 16%↑)

생산량 1,239천톤(평년비 4%↓, 전년비 17%↑)

□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, 일조량과 기온이 생육에 적합한 가을에 성장하기 때문에 배추 4가지 작형(봄, 고랭지, 가을, 겨울)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품질도 좋아 11월과 12월 배추 평년가격은 통상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

* 5년 평년 생산량 : 가을 배추 : 1,298천톤, 고랭지배추 : 216천톤

- 5년간 11월과 12월의 배추 평년가격은 고랭지 배추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고, '19년 9월, 10월 세차례의 태풍으로 올해보다 작황이 부진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도매가격도 포기당 3천원 이하였습니다.

- * 평년 도매가격 : (8월) 4,001원/포기 → (9월) 4,282 → (10월) 2,235 → (11월) 1,995 → (12월) 1,977
- * 평년 소비자가격 : (8월) 4,784원/포기 → (9월) 5,894 → (10월) 4,108 → (11월) 3,023 → (12월) 3,209
- * '19년 도매가격 : (8월) 2,351원/포기 → (9월) 4,813 → (10월) 4,310 → (11월) 2,975 → (12월) 2,902
- * '19년 소비자가격 : (8월) 4,784원/포기 → (9월) 5,362 → (10월) 6,542 → (11월) 4,589 → (12월) 4,59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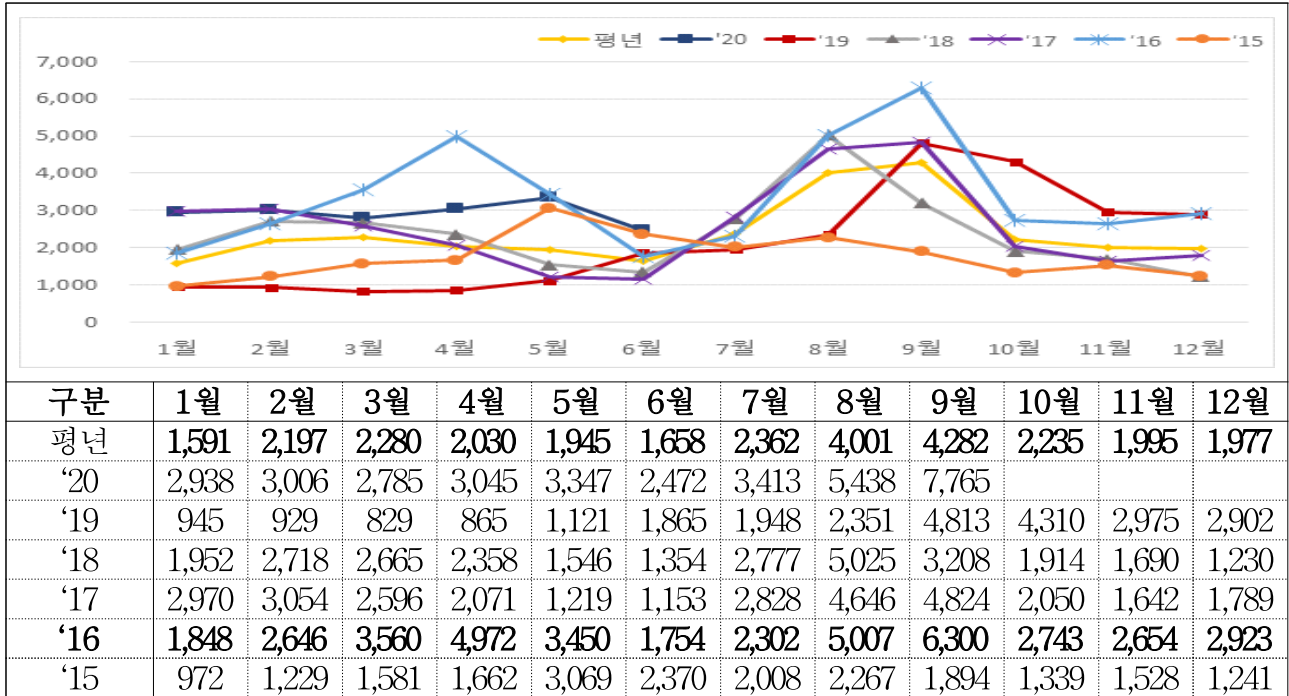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본격 김장철(11월 하순~12월 상순)에 소비자의 김장비용 경감과 김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할인행사 및 김장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고, 농가 기술지도, 작황 점검 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참고

'15년 ~ '20년 배추 가격동향

□ 도매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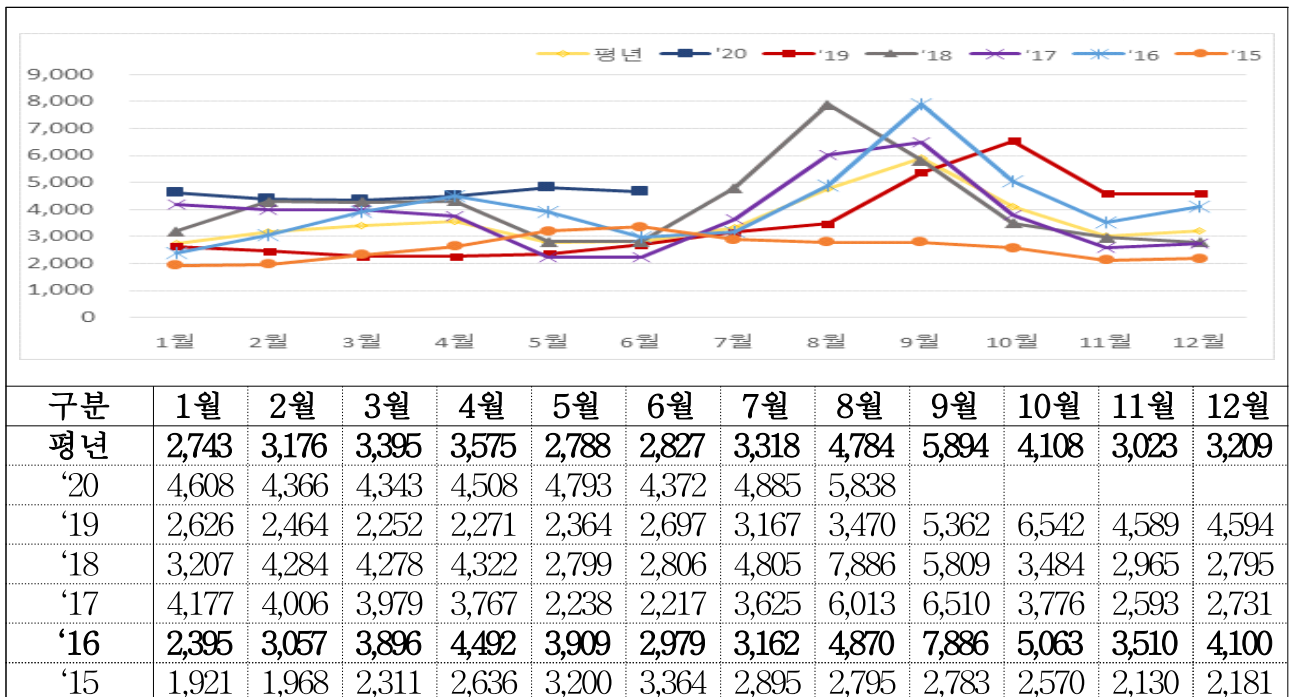
(상품, 단위: 원/포기)



* 자료 : 서울시농수산물공사(가락시장)

□ 소매가격

(상품, 단위: 원/포기)



* 자료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KAMIS)